

일본의 생산녹지(生産緑地) 방치 원인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 아이치(愛知)현 오부(大府)시를 사례로

21학번 곽O형

I. 생산녹지 제도의 개요

• 생산녹지(生産緑地)란?

생산녹지란 도시계획법에 의해 지정된 시가화구역(市街化区域, 10년 내 시가화가 진행될 예정이거나 현재 시가지인 구역) 내의 농지로, 시가지 내의 녹지면적을 유지하여 양호한 도시환경 형성을 목표로 하는 일종의 도심 속 절대농지이다. 고도경제성장기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도시의 과밀화는 환경오염이나 주거환경 악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발생시켰다. 따라서 1972년, 일본 정부는 이러한 도시문제를 타파하기 위하여 생산녹지법을 제정해 전국의 시가화구역 내 녹지를 확보하고 도시환경의 개선을 도모하였다.

• 생산녹지의 지정과 이후

생산녹지법에서는 생산녹지의 지정에 있어서 [표 1]과 같은 지정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표 1] 생산녹지 지정 요건

1. 시가화구역 내 농지
2. 500㎡ 이상의 토지
3. 녹지 가능 및 다목적 보류지 기능이 있는 토지
4. 지속적인 농업이 가능한 토지
5. 농지의 소유자 등 관계자 전원의 동의가 이루어진 토지

[표 1]의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토지의 경우, 소유자의 생산녹지 지정 신청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심의를 거쳐 생산녹지로 지정된다. 생산녹지로 지정된 이후에는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상 생산녹지로 명시되며, 30년간 농지로서의 관리 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생산녹지 내의 경우, 농막, 가공시설 등의 시설 외의 건축행위가 제한되며, 이 경우에도 시정촌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생산녹지로 지정되는 경우, 토지 소유주는 해당 토지의 이용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 부과에 대한 보상으로, 생산녹지로 지정되는 경우 상속세(증여세)의 납세 유예 제도가 적용되며 고정자산세 경감 조치 등과 같은 우대 조치가 제공된다.

• 생산녹지의 현황

이와 같이, 지정 이후 농지로서의 관리 의무나, 건축행위의 제한과 같은 토지 이용에서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조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이익을 근거로 다수의 토지가 생산녹지로 신청·지정되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현재까지도 이어져 2023년 12월 기준 55,198 개소의 약 11,171 헥타르가 현재 생산녹지로 지정되어 있다(국토교통성, 2024).

II. 문제의식 설정 및 조사목적

• 생산녹지의 방치

이러한 생산녹지는 그 탄생 목적과 같이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녹지로서의 기능이 기대되었다. 실제로도 [사진 1]의 좌측과 같이 농지로 관리되어 양호한 도시환경 형성에 일조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근래 다수의 생산녹지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1]의 우측 사진과 같이 농지로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으며, 잡초만이 무성한 빈 땅으로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방치된 토지의 경우, 단일 토지의 황폐화 문제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까지 다방면적으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이호상, 2023). 즉, 생산녹지가 방치될 경우, 양호한 녹지 조성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이라는 목적에 반해 오히려 방치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가 도시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사진 1] 관리 상태가 양호한 생산녹지(좌)와 방치된 생산녹지(우)



2025. 01. 23. 필자 촬영.

이처럼 방치된 생산녹지는 도시경관 악화를 포함한 다양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방치된 생산녹지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은 거의 전무한 수준이며, 선행연구 또한 생산녹지에 대한 인식이나 법률의 제·개정 이후 생산녹지의 설정과 확대에 대한 연구에만 집중되어 있는 양상이 확인된다. 즉, 생산녹지의 방치에 대한 문제제기나 연구는 상당히 미흡하다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생산녹지의 방치 실태를 파악하고 방치의 원인과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해서 아이치현 오부시의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고자 한다.

III. 조사대상과 조사방법

본 조사에서는 아이치현 오부시의 생산녹지 전체를 조사대상으로, 4일 간(2025년 1월 20-23일)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오부시는 아이치현 지타(知多) 반도 부근에 위치한 시로, 나고야(名古屋)시의 베드타운으로 개발된 지역이다. 오부시의 개발은 생산녹지법이 제정된 197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시역 전체에 생산녹지가 고르게 분포해 있다. 2024년 기준, 면적당 생산녹지 수 또한 2.67/㎢으로, 전국 평균(0.14/㎢)이나, 생산녹지가 집중되어 있는 3대 도시권 평균(0.96/㎢)에 비해서도 확연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비교적 다수의 생산녹지가 오부시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생산녹지가 시역 전체에 고르게 분포해 있어 다양한 양상의 생산녹지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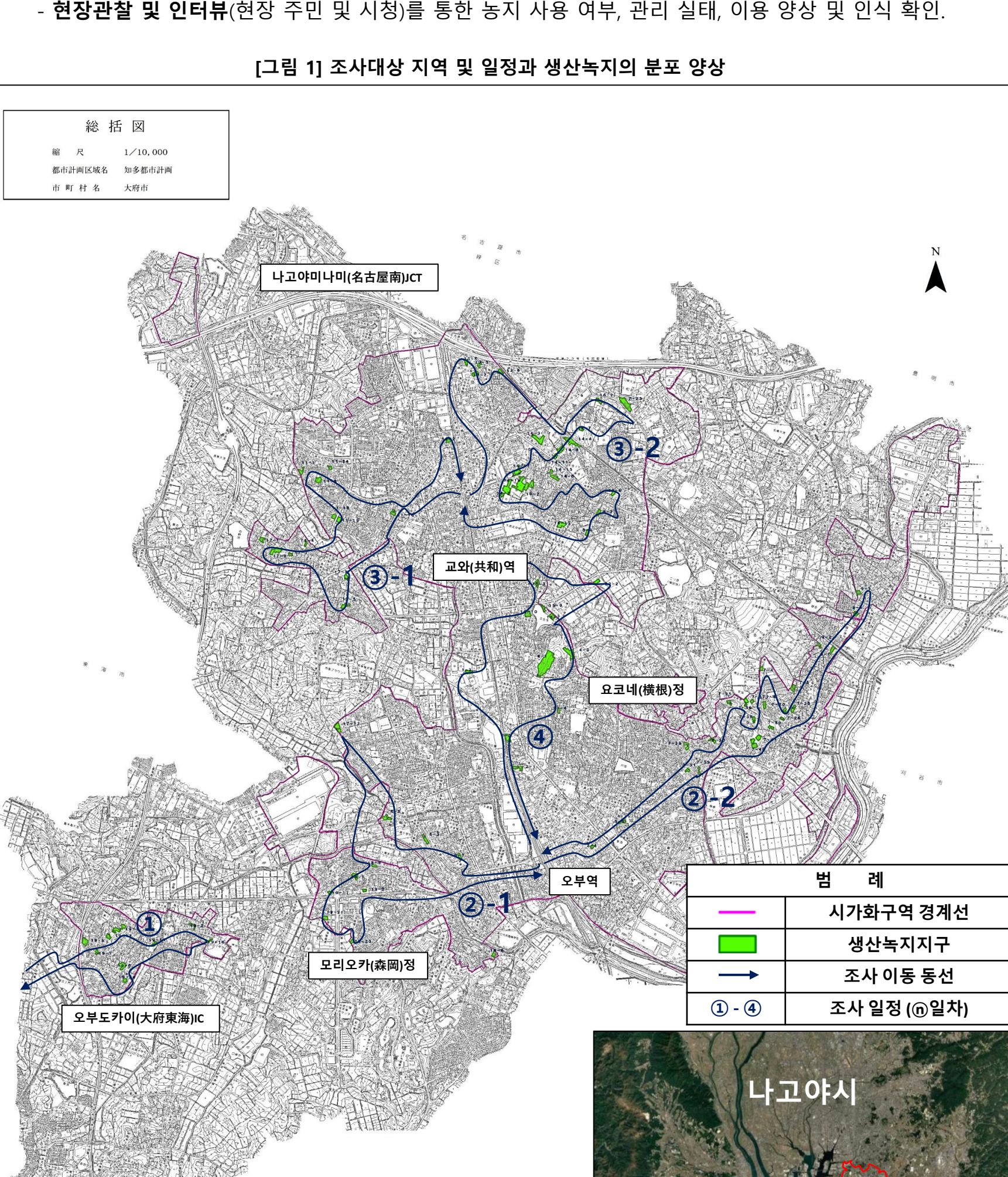
• 조사대상

- 아이치현 오부시 생산녹지 전체(90개소, 12.43ha).

• 조사방법

- 현장관찰 및 인터뷰(현장 주민 및 시청)를 통한 농지 사용 여부, 관리 실태, 이용 양상 및 인식 확인.

[그림 1] 조사대상 지역 및 일정과 생산녹지의 분포 양상



(좌) 大府市, 「大府市生産緑地地区指定図」, https://www.city.obu.aichi.jp/_res/projects/default_project/_page_001/003/066/240329/250317soukat_suzu.pdf를 필자가 수정 (2025년 3월 15일 최종접속). (우) Google 지도를 필자가 수정.

IV. 오부시 생산녹지 관리 상태 현황 및 분석

• 생산녹지 표본 구분

본 조사에서는 생산녹지를 이용 양상과 관리 상태를 기준으로 방치형, 준방치형, 준관리형, 관리형, 개발형, 총 다섯가지로 구분하였다. 토지가 전혀 관리되지 않아 황무지에 준하는 상태인 생산녹지를 방치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작물을 기르고 있거나 밭고랑이 일구어져 있는 등 농지로서 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관리형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방치형과 관리형으로 단언하기 어렵지만 그에 준하는 경우는 각각 준방치형과 준관리형으로 구분하였으며, 토지구획사업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관리 상태를 파악할 수 없어 주변 시가지에의 영향평가가 불가능한 경우는 개발형으로 구분하였다. 대개의 경우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경관을 통해 판단하였으며, 조사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Google지도와 현지 주민 인터뷰 내용 또한 함께 검토하였다.

[표 2] 생산녹지 표본 구분 기준

■ 방치형	아무 것도 없음(황무지), 쓰레기만 방치, 잡초가 무성, 과수의 방치, 밭고랑 흔적이 없음 등의 요소를 통해 방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준방치형	극히 소규모의 텃밭 및 방치된 텃밭, 썩어있는 식물 등의 요소를 통해 영농의 흔적이 극히 미세하게 남아있어 방치형에 준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준관리형	소규모의 텃밭이 비교적 정비되어 있는 경우, 과수 및 밭고랑이 유지되어 있는 등 비교적 생산녹지의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관리형	현재 영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지 면적의 ¾ 이상이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 개발형	현재 부지 일대가 토지구획사업으로 인해 본래의 토지 관리 상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생산녹지의 관리 상태 현황 및 양상

- 생산녹지의 방치 현황

아이치현 오부시의 경우, 전체 90개소 생산녹지 중 방치형이 29개소, 준방치형이 21개소, 준관리형이 7개소, 관리형이 22개소, 개발형이 11개소로 확인되었다. 본 분석에서는 본래의 양상을 확인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하여 지역사회에의 영향평가가 불가능한 개발형을 제외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개발형을 제외한 범 방치형과 범 관리형 생산녹지를 기준으로 할 때, 범 방치형 생산녹지가 범 관리형에 가까운 생산녹지에 비해 약 21개소가 더 많으며, 범 관리형에 비해 범 방치형이 약 1.72배의 규모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생산녹지 관리 상태 현황

단위 :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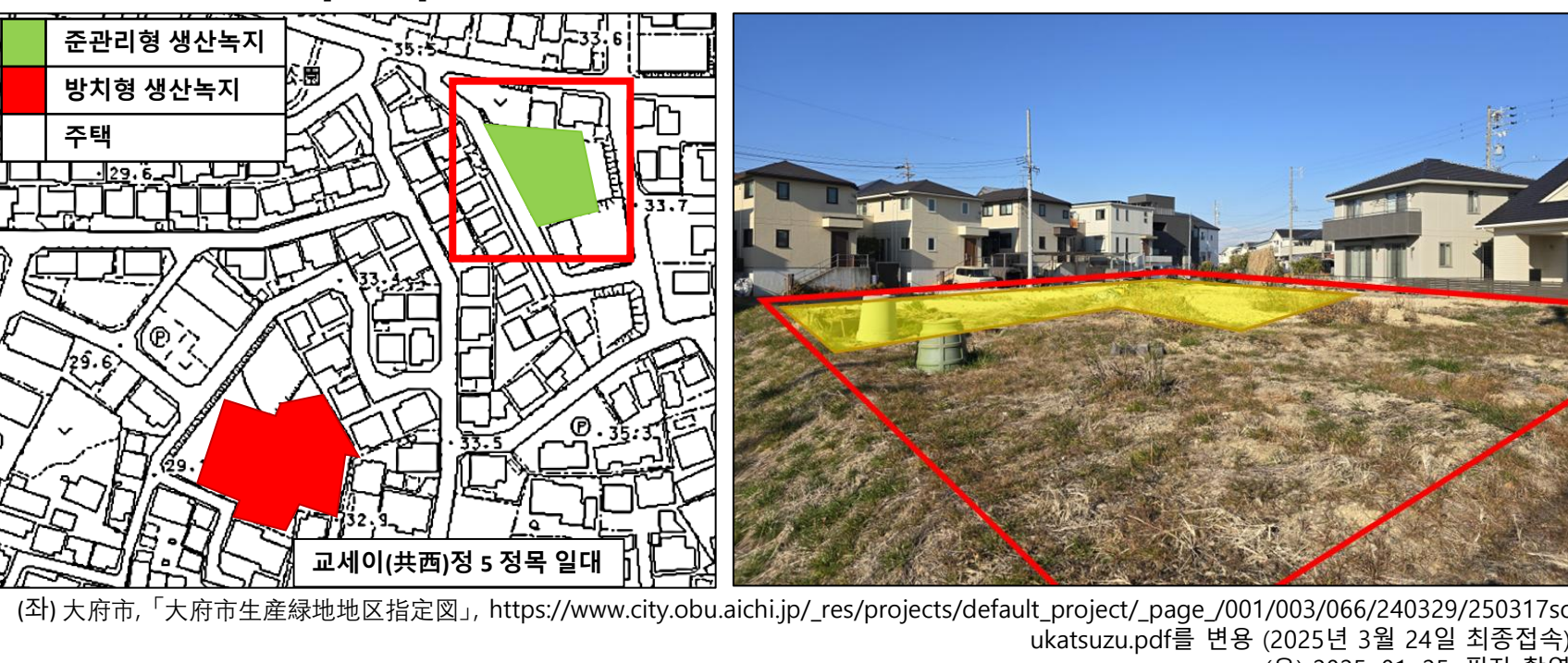
구분	범 방치형 생산녹지		범 관리형 생산녹지		개발형	합계
	■ 방치형	■ 준방치형	■ 준관리형	■ 관리형		
생산녹지 수	50		29		11	90
	29	21	7	22		
생산녹지 비율	55.6		32.2		12.2	100
	32.2	23.3	7.8	24.4		

- 범 관리형 생산녹지의 부분적 관리

앞서 제시된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오부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생산녹지의 경우 약 56%가 범 방치형에 가까우며, 약 32%가 범 관리형에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제시된 관리형

생산녹지의 경우 또한 생산녹지의 일부분을 소규모 '뒷밭'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였으며, 뒷밭으로 관리되고 있는 토지의 이외에는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아래의 [그림 2]의 우측은 준관리형으로 구분된 생산녹지로, 붉은 색 테두리 전체가 생산녹지인 것에 비해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면적(황색 도형으로 표시)은 턱없이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범 관리형 생산녹지로 판단된 생산녹지의 경우에도 구역 전체가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웠다.**

[그림 2] 구역의 일부분만이 농지로 관리되고 있는 준관리형 생산녹지



(좌) 大府市, 「大府市生産緑地地区指定図」, https://www.city.obu.aichi.jp/_res/projects/default_project/_page_001/003/066/240329/250317so ukatsuzu.pdf를 변용 (2025년 3월 24일 최종접속). (우) 2025. 01. 25. 필자 촬영.

-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 과수원으로 이루어진 생산녹지
 방치형과 관리형을 막론하고, 다수의 표본에서 과수원으로 이루어진 생산녹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생산녹지에서 과수를 기르고 있는 H씨는 과수를 기르는 가장 큰 이유는 “과수의 경우에는 논이나 밭에 비해 관리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라고 언급했다. H씨는 다수의 생산녹지 소유자들은 농업 그 자체에 대한 목적의식이 없고 본래 소유하던 토지의 절세를 위해 생산녹지를 설정한 것 뿐이며, 따라서 이러한 생산녹지 소유자들이 관리가 수월한 과수를 기른다고 주장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절세만을 위한 생산녹지 소유자들은 대개 과수를 심어두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방치형 생산녹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 **방치형의 부정적 외부효과**

이와 같은 방치형 생산녹지의 경우 아래의 [표 3]과 같이 크게 세 가지의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을 주민 인터뷰 및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표 4] 방치형 생산녹지의 부정적 외부효과

A. 주택과 인접한 방치형 생산녹지로 인한 도시경관 및 주민 생활환경의 악화.
B. 방치형 생산녹지에서 발생한 병충해가 인접한 다른 농지로 전파.
C. 화재 발생의 위험성과 주민의 우려.

[그림 2, 3, 4]의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다수의 생산녹지는 주택지와 접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녹지가 방치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 잡초 등은 인접 주택의 거주자의 생활환경 악화를 일으키게 된다. 방치형 생산녹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K씨는 “방치된 생산녹지에서 자라나는 잡초와 사람들의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하여 벌레와 냄새가 발생한다.”라고 고충을 호소했다. 또한 이러한 방치형 생산녹지는 다른 농지와 이웃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H씨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경우, 하나의 방치형 생산녹지에서 발생한 병충해가 인접한 다른 농지로 번지는 경우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생산녹지 인근 공민관에서 근무하는 N씨는 “방치된 농지에서 발생한 잡초가 겨울철에 건조해져서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이를 실제로도 경계하고 있다.”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방치된 생산녹지는 잡초, 쓰레기, 벌레 등 다양한 양상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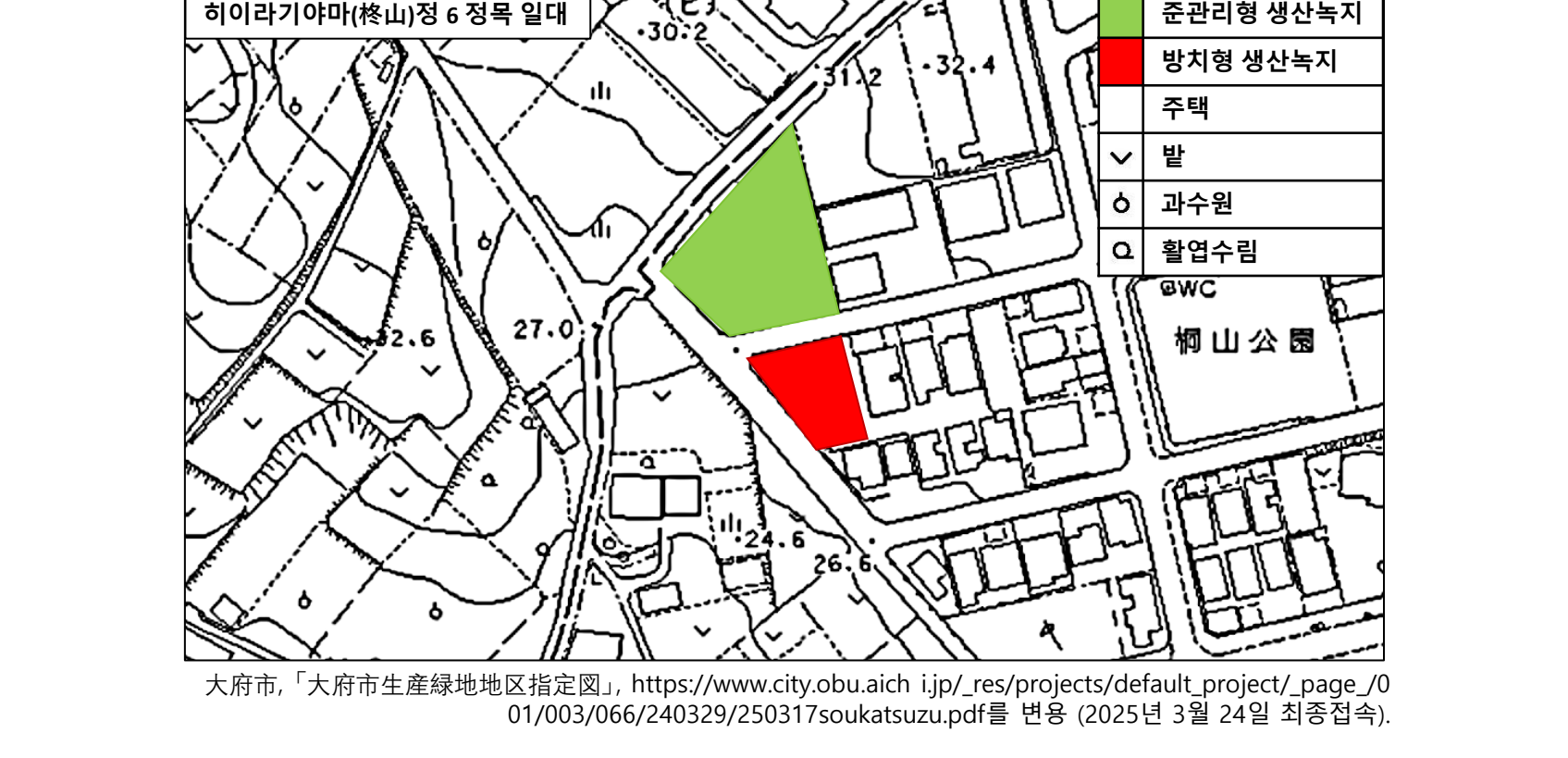
앞서 언급한 [표 4]의 부정적 외부효과 이외에도, 방치된 생산녹지에서 발생한 잡초가 도로를 침범하여 나타나는 불편함도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장조사 당시에도 생산녹지에서 발생한 잡초가 도로에 침범하여 필자의 다리에 도깨비풀이 붙는 등, 일반적인 통행에서도 불편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방치된 생산녹지는 잡초, 쓰레기, 벌레 등 다양한 양상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 인접 주택에 악영향(잡초에서 해충이 발생해 인접 주택으로 전파)을 미치는 방치형 생산녹지



(좌) 大府市, 「大府市生産緑地地区指定図」, https://www.city.obu.aichi.jp/_res/projects/default_project/_page_001/003/066/240329/250317so ukatsuzu.pdf를 변용 (2025년 3월 24일 최종접속). (우) 2025. 01. 21. 필자 촬영.

[그림 4] 인접 농지로의 해충 전파가 우려되는 방치형 생산녹지



大府市, 「大府市生産緑地地区指定図」, https://www.city.obu.aichi.jp/_res/projects/default_project/_page_001/003/066/240329/250317so ukatsuzu.pdf를 변용 (2025년 3월 24일 최종접속).

이와 같이 오부시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생산녹지의 과반은 방치되어 있는 내대지에 준하는 상태를 보였으며, 생산녹지의 방치로 인한 도시환경의 악화와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해 과수원으로 이루어진 생산녹지와 부분적으로만 관리되고 있는 범 관리형 생산녹지를 통해, 범 관리형으로 구분된 생산녹지의 경우에서도 충분히 방치형과 유사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본 사태의 심각화 가능성 또한 엿볼 수 있었다.

V. 생산녹지의 방치 원인

생산녹지의 방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조사를 비롯하여 생산녹지 소유자 및 오부시청 도시정책과 관계자와 인터뷰 조사를 진행했다. 많은 원인이 제기되었으나, 다수의 문헌과 인터뷰 내용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생산녹지의 방치 원인은 다음의 세 가지와 같다.

(1) 청년 인구의 유출과 고령화

인터뷰를 진행한 모든 생산녹지 소유자와 오부시청 도시정책과 B씨와의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생산녹지 방치의 원인은 인구학적 요인이다. 생산녹지 소유자인 F씨는 “**고령화로 인하여 다수의 생산녹지 소유자가 영농을 포기하였다**”라고 밝혔으며, 또 다른 생산녹지 소유자인 H씨는 “**청년 인구 유출로 인한 후계자의 부재 문제가 생산녹지를 유지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렇듯 지금까지 생산녹지를 관리해오던 인력이 고령화로 인해 더 이상 관리할 수 없게 되거나, 생산녹지 관리를 이어가갈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생산녹지 방치의 제1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인구의 구조적 변화로 인하여 생산녹지의 방치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2) 농업인의 영농 의지 약화

두 번째 생산녹지의 방치 원인은 **농업인의 영농 의지 약화**이다. 선행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坂本淳二・森口知樹, 2022) 생산녹지 소유자들의 대부분은 절세에 목적을 두고 토지를 생산녹지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 H씨는 “근래 기후변화가 점차 심각해져 '가메무시(カメムシ)'와 같은 병충해가 더욱 심각해져 농산물의 상품성이 급락하고, 가뭄 또한 심각해져 물을 구하기도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H씨는 이러한 요인으로 인하여 “**원래도 농사에 큰 뜻이 없는 사람들이 세금 때문에 적당한 농사를 지었는데, 이런 병충해나 자연재해가 영농 의지를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라고 현 사태의 원인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환경적 변화는 이미 인구학적 요인 등으로 인해 약화된 **생산녹지 소유자의 영농 의지를 더욱 약화시켜 생산녹지의 방치로 이어지게 만든다.**

(3) 제도의 모호한 규정과 해제 절차의 어려움

이러한 생산녹지 방치화의 원인으로 **제도적 요인** 또한 제시되고 있다. 현재 생산녹지 제도와 관련된 유일한 법률인 생산녹지법의 경우 생산녹지의 지정과 그 이후의 관리 의무, 해택에 대한 규정이 주요한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에 반해 **농지로서의 관리에 대한 기준이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제재 사항 및 자격 박탈에 대한 규정의 경우, 상당히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시정 당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 2회의 생산녹지 시찰을 통해 방치된 생산녹지가 발견되는 경우에도,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관리를 '요구'하는 수준의 조치밖에 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생산녹지의 지정 후 해제 절차가 복잡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생산녹지 소유자 C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번 등록된 생산녹지의 경우, 이후에 사정이 생기더라도 해제 절차가 복잡하고 농업 유지가 불가능한 사유를 증명해야 하는 등 해제 절차가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하여 **다수의 생산녹지가 관리되기 어려운 상황에도 해제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더 이상 생산녹지의 관리가 어려워 해제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어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생산녹지의 방치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효과와 원인은 다음과 같다. 우선 생산녹지를 관리할 인구의 고령화와 후계자가 부족하다는 인구학적 요인에, 환경 문제 등이 더해져 소유자의 영농 의지가 약화된 것이 제1의 원인이다. 또한, 생산녹지 관련 법제의 모호한 기준과 복잡한 해제 절차를 방치가 심화되는 제2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즉, **단순히 제도적 허점과 개인들의 일탈이 아닌 사회 구조적 변화와 기후변화, 제도적 문제점 등이 서로 그물망처럼 얽혀져 만들어진 문제라고 볼 수 있다.**

VI. 결론

생산녹지 제도는 고도경제성장기 당시, 시가지에 녹지를 남겨 도시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양호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등 인구의 구조적 변화로 인하여 영농 인구가 감소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병충해 및 가뭄 등은 생산녹지 소유자들의 영농 의지를 약화시켜 점차 방치된 생산녹지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더불어 이러한 방치에 대한 제도적 제재의 미비와, 생산녹지 해제 절차의 복잡성과 같은 제도적 문제는 이러한 생산녹지의 방치를 가속화했다.

이러한 생산녹지는 시가지구역 내에 입지한다는 본질적 특성으로 인해 방치될 경우 갖가지 도시문제를 야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대표적으로 방치된 생산녹지에서 발생한 잡초, 벌레, 쓰레기 등은 도시미관이나 위생 등에서 문제를 발생시켜 주민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외에도 이웃한 농지로의 병충해 전파나 화재 우려 등 생산녹지의 방치는 다양한 도시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생산녹지의 방치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점차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생산녹지의 후계자 문제의 심화(竹内重吉, 2022)나 영농 의지 약화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범 관리형의 점진적 방치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시정 당국에서는 생산녹지의 방치 현황에 대한 파악조차 못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조차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생산녹지의 대규모 해제로 인한 택지 과잉 공급 우려나 시가지 내 녹지 확충 문제(塩澤誠一郎, 2022) 등으로 인하여, 단순히 규제 강화를 통해 타개해 나가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본 조사는 생산녹지의 방치 실태를 아이치현 오부시의 사례를 통해 파악하고, 그 원인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고찰하며 생산녹지 제도의 역작용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표본이 오부시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과, 방치된 생산녹지의 분포에 대한 분석이 미비한 점, 그리고 빈 땅과 경작포기 등 다른 방치형 토지와 연계적 논의가 부족했던 점은 본 조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참고문헌

[**학술논문**]
 이호상, 2023, “초고령사회 일본의 방치부동산 발생 원인과 과제: 소유자별명 토지와 빈집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비평, 28,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pp.86-117.
 坂本淳二・森口知樹, 2022, “「生産緑地2022年問題」に対応した都市農地制度についての農地所有者への意向調査”, 2022年度日本地理学会春季学術大会, 94(1), 日本地理学会, p.208.
 塩澤誠一郎, 2020, “2022年問題と都市農地保全・都市農業政策”, 日本不動産学会誌, 34(1), 日本不動産学会, pp.15-20.
 竹内重吉, 2022, “大都市近郊地域における農業構造と生産緑地の相続”, 農業経済研究, 94(1), 日本農業経済学会, pp.61-66.

[**웹자료**]
 大府市, 生産緑地地区, <https://www.city.obu.aichi.jp/shisei/shisaku/toshikei/1003063/1003066.html> (2025년 3월 24일 최종접속).
 大府市, 生産緑地の肥培管理の考え方, https://www.city.obu.aichi.jp/_res/projects/default_project/_page_001/003/066/hibaikanrinokann gaekata.pdf (2025년 3월 24일 최종접속).
 国土交通省, 生産緑地地区の都市計画決定状況, <https://www.mlit.go.jp/toshi/park/content/001733144.pdf> (2025년 3월 24일 최종접속).
 国土交通省, 生産緑地制度の概要, <https://www.mlit.go.jp/toshi/park/content/001612019.pdf> (2025년 3월 24일 최종접속).
 ALANDIS, 大府市公開型GIS, https://webgis.alandis.jp/obu23/webgis/index.php/autologin_jswebgis?ap=jsWebGIS&m=2&u=toshikeikak u&i=1 (2025년 1월 9일 최종접속).
 Google 지도.